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그 안에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과사는 남자’

내달까지 주 3회꼴...주말 종별 해설
수요일 ‘회진’...병원 시설·치료 소개
단순 관람 넘어 ‘삶 이해’ 계기 목적
내일 외교부 ‘판다 입식’ 검토차 방문

“동물원에 와서 그 안에 함께 들여다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광주 우치동물원 관리사무소 소속 수의사는 1일 처음으로 선보인 ‘동물과 사는 남자’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영화 ‘왕과 사냥꾼’에서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엄홍도’의 대사를 인용한 이 말은 방문객들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동물들의 삶을 보다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과 맥이 닿아 있다. 이날 오전 10시에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체험’을 위해 5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우치동물원 관리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을 위해 준비한 동물과 사는 남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휴일마다 진행된다.

동물 해설·교육 프로그램과 수의사 회진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올해 주말에는 들소와 코



동물원의 호랑이, 코끼리, 기린, 낙타, 들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육사들과 수의사들이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물 해설 프로그램이 시작된 1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동물원 동물병원에서 방문객들이 동물원 수의사와 함께 회진을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끼리, 호랑이, 낙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우치동물원의 설명이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동물원 수의사와의 회진은 우치동물원 내부의 동물병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입원실과 수술실, 영상 진단장비 등이 갖춰진 이곳에선 종별 특성에 맞춘 진료와 입원한다.

현재 입원 중인 동물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의 2세인

‘산이’와 영무새 ‘듀꺼비’ 등이었다. 당초 산이는 다른 곳에서 지냈으나, 노견에 접어들면서 집중관리를 위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부리가 부러져 세계 최초로 인공 부리를 이식한 듀꺼비는 이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재수술 전까지 입원 중인 상태다.

참가자들은 듀꺼비의 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X-ray 촬영 등을 지켜보며 사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료 시스템에 신기함을 표했다.

병원 내 조제실에서는 약품을 종별 특성에 맞게 조제하는 과정이 시연됐다.

강 수의사는 “같은 약이라도 동물마다 체중과 상태가 달라 용량과 조합을 다르게 만든다”며 “약마다 맞춤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원 견학을 마친 참가자들은 발달기습곰 사육장으로 이동해 강 수의사와 정해진 진료팀장이 회진하는 것을 지켜봤다.

사육장에 있던 4마리의 곰들은 수영장에서 물

놀이를 즐기거나 낮잠을 취하고 있었다. 바깥에서 곰들의 털과 배변 상태 등을 살펴본 건강 상태를 점검하던 강 수의사는 “동물은 아픈 것을 숨기는 특성이 있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진료가 필요할 때는 마취를 통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발달기습곰 중 일부는 과거 응급 채취용 농장에서 구조됐던 터라, 보호와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프로그램의 최연소 참가자 최모(10)군은 “동물원은 자주 왔지만 동물병원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치료받는 걸 보니 신기했다”고 웃음 지어 보였다.

최 군의 보호자로 동행한 박모(30대·여)씨는 “동물병원과 회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새롭고 흥미로웠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경험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광주 우치동물원 수의사는 “동물원은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아픈 동물을 치료하고 삶을 지켜내는 곳”이라며 “동물과 사는 남자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원했다.

한편 오는 3일 외교부는 우치동물원을 찾아 판다 입식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판다 한 쌍 대여를 요청하면서 입식 장소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록 잡어 말했다.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양뉴스)

세월호 12주기...광주·전남 곳곳서 추모행사

11-16일 5·18광장에 분향소 설치

청소년기억문화제·당일 선상추모식

광주·전남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

1일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임 등에 따르면 오는 11-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

11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주청소년기억문화제’가 개최된다. 청소년과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체험 부스와 거리공연, 생활 안전 기획전시 등이 마련되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한 플래시몹 공연도 이뤄진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목포신항에서 출발해 진도 맹골수도 등 사고 해역으로 이동하는 선상추모식이 진행된다.

선상추모식은 해역에서 묵념과 호명, 헌화, 추도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목포신항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앞에서는 ‘기억·약속·책임’을 주제로 한 기억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린다. 오전부터 지역 곳곳에서 마을 단위 촛불 퍼게팅이 진행되고 오후 4시16분에는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시민기억문화제’ 본행사가 막을 올린다. /서형우 기자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입찰비리’ 의혹 피소

입찰방해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등 2명이 과거 향민공사 사장 재직 시절 물류창고 입찰에 부당하

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들에게 고발당했다. 광양지역 시민 400여명은 1일 박 예비후보 등 2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박 예비후보가 광양향민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11월 물류창고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내정하기 위해 입찰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이를 입찰할 녹취록 등 관련 증거자료도 경찰에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주 고려인 법률상담 절반 ‘임금체불’

광주YMCA 법률지원단 분석

올 1분기 22건 중 11건 차지

계약서 없는 등 증거 불충분 다

광주 거주 고려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1위는 임금체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YMCA 고려인마을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진행된 법률상담 내역 22건 중 절반인 11건이 임금체불 관련이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지속돼 분쟁 발생 시 노동청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지원단의 설명이다.

주거 및 생활 밀착형 분쟁도 꾸준한 상황이다.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 및 주택 천장 누수 하자 보수 등 부동산 관련 상담이 2건(9.1%), 자녀의 교통사고 및 개물림 사고 등 사고·범죄 2건(9.1%)으로 파악됐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절차 상담도 1건(4.6%)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개인 간 대여금 반환 등 민사 상담 2건(9.1%) 증가 수집 재상담 등 기타 4건(18.2%)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 수요도 확인됐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법률상담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증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류 한 장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며 느끼는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